

Ⅰ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 Ⅰ

비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최 순 희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전공

본 연구는 비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한 50인 미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음식점등의 비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213개소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산업간호협회 경기남부보건안전센터에서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2006년 10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에 동의한 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작성하게 하였다. 응답자는 213명이었으나, 이중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46점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아실현이 2.93점으로 가장 높았고, 운동이 1.86점으로 가장 낮았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는 건강책임 영역에서 남자가 건강관리에 더 노력하는 등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책임, 운동, 영양 그리고 전체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은 40세 이상의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다. 영양영역에서는 기혼자가 규칙적인 식사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졌으며 유의했다.

3.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은 현재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약물을 복용하는 군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 등 건강책임 영역에서 실천정도가 높았고, 현재 질병이 없는 경우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 등 스트레스 영역의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신을 건강하다고 지각한 군이 규칙적인 운동 및 관리에 대한 운동영역에서의 실천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4. 비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전체 건강증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지각된 건강상태였다. 연령은 40세 이상에서, 지각된 건강상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 점수가 높았으며, 17.6%의 설명력을 지녔다.

이상의 결과에서 비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생활양식 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현재질병, 지각된 건강상태 등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

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업장과 근로자의 개인 및 건강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건강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